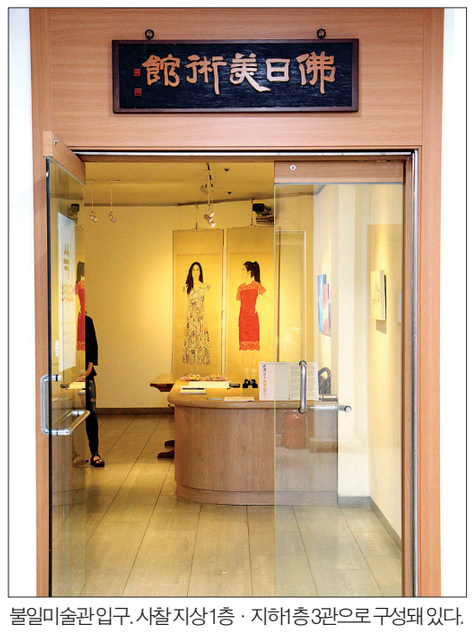


개관 20주년을 맞은 35평 규모의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지하 1층 내부 전경. 스님과 불자가 현재 전시중인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입구. 사찰지상1층 · 지하1층3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교미술 진흥 견인차… 새로운 도약 꿈꾸다

개관 20주년 맞은 법련사 불일미술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복궁의 인근 삼청동과 사간동은 현재 문화 · 예술의 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을 비롯해 유명 화랑들과 사립 박물관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20년 간 불교미술 전문 상설전시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공간이 있다. 바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내에 자리한 불일미술관이다.

첫 불교미술 상설전시관 태동

불일미술관은 올해로 꼭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1996년 3월 6일 개관한 불일미술관은 법련사 내 지상 1층(1관)과 지하 1층(2, 3관)에 걸쳐 총 3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일미술관의 역사는 법련사의 중창과 함께 이뤄졌다. 1974년 창건한 법련사는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이 중창불사를 진행했고,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했다. 고민을 통해 나타난 것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포교'였다. 당시에도 사간동 일대는 갤러리 현대, 국제화랑, 아트스페이스 서울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금호미술관이나 선재미술관 등도 개관을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불교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미술관은 전무했고, 법련사는 사찰 내 미술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된다.

이 같은 원력은 불일미술관 개관 당시 밝힌 서울 법련사 회주 현호 스님의 일성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끼고 향유하는 문화 공간은 곧 삶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사찰도 전통과 현대문화를 고루 갖추고 사회에 회향하는 열린 도량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개관 이후 불일미술관은 불교를 넘어 종교계 최초의 전문전시공간으로 주목을 받았고 불교미술품, 도예품, 시서화, 사진 등을 전시했다. 또 일반 작가들에게도 대관하며 미(美)의 거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법련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4년 12월에 열린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한 故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장익 주교의 모습.

1996년 문화포교 일환 개관
사찰 내 불교 미술관의 효시
근대 선지식 선묵전 시작으로
미술 전반 아우른 전시회 열어
신진 불교작가 발굴 · 지원 계획

장르 · 종교 넘나드는 새로운 전시

불일미술관은 개관 이후 20년 동안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 왔다. 불일미술관의 첫 전시는 1996년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 '근세고승유묵전'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47명의 선지식들의 유묵을 만날 수 있었던 전시회에는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이 혜월 스님에게 준 전법게와 개화운동가 동인 스님의 서간문 등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효봉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전(1996), 목아 박찬수 작가 40년 회고전(2002) 등과 같은 굵직한 전시회와 사경 · 도예 · 불화 ·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전시회도 불일미술관을 통해 2004년 12월에 열렸다. (사)불교문화사업기획단이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한 기획전시회에서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故법장 스님과 장익 천주교주교회의 총무가 직접 개막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시에는 불교 측 11명, 가톨릭 측 12명의 국내 정상급 작가가 참여해 30여 작품을 선보였다.

2005년 7월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및 달라이라마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본지가 주최한 '모래 만다라 특별전'도 불일미술관의 역사에 남을 전시다.

7일의 전시기간 중에 진행된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 사원의 스님들의 대형 모래 만다라 제작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서옹 · 서암 스님의 선필(禪筆)과 선화(禪畵)를 처음으로 공개한 전시회도 불교계 안팎으로 회자됐다. 법련사가 직접 기획했던 선필전시회는 2000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렸다. 당시 서옹 스님과 서암 스님은 각각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당대의 불모(佛母)로 꼽히는 석정 스님과 대표적 선화가인 수안 스님, 달마도의 대가인 청광 스님 등도 선화를 곁들여 전시를 빛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제150호 김정옥 씨를 비롯해 신정희, 천한봉 씨 등 유명 도예가들도 전시에 동참해 두 스님의 선묵을 장엄하기도 했다.

"불교미술 진흥위해 노력"

개관 20주년을 맞은 불일미술관은 현재 새로운 도약 준비 중이다. 바로 신진 불교작가 발굴과 지원이다. 이는 최초의 불교 및 종교 전문 상설미술관으로서 위용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불일미술관의 원력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6월 8일 신진작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작품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12명(단체 포함)의 작가가 선정됐다. 이들 작가들은 무료 대관을 통해 6개월 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현재는 6월 14일 개막한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가 26일까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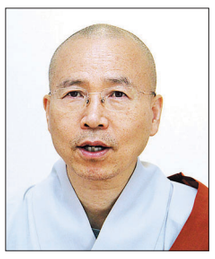
그룹전에 참여 중인 강가연 작가는 "전문 작가를 꿈꾸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전시회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관료가 만만치 않다"면서 "그냥 일반 갤러리에서는 전시회를 해도 별로 사람이 오지 않지만, 불일미술관과 같은 사찰 미술관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어서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지 진경 스님은 "작가 발굴을 통해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지원금 등 작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돌 미술관, '청년다운' 활동 전개"

서울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작가 공모 · 지원 중요하지만
지속성 관건, 종단적 관심을
올해 말 종교 화합 주제로
기획 전시회도 계획 중

"중창 당시 법련사가 미술관을 개관한 것은 도심포교당으로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창조적 불사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문화 예술 거리로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에 불교 전문 미술관을 개관해 불교 미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잘 유지 ·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사진〉은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의 의미에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앞선 선지식들이 일궈놓은 성과물들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현재 진경 스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미술 진흥이다. 개관 20주년 사업으로 '무료대관'을 걸고 신진 작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0여 작가가 몰렸고, 이중 12명의 작가(팀 포함)를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선정인원을 조절하고 약간의 전시지원금을 보태려고 합니다. 이 같은 공모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제 시작한 작가 공모는 잘 다듬으면, 불교계 유수의 공모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진경 스님은 "20살 청년이 된 불일미술관이 나이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올해 연말 쯤에는 종교화합을 위한 교류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발전 방안이라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 걸음씩 의미있는 전시를 통해 불일미술관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불일미술관의 '청년다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 네팔 성지순례

현지 국내 항공 4회 이용으로 품격있는 순례

성지순례일정 : 2016년 8월 26일(금) ~ 9월 7일(수) 〈13일〉

▶ 법회 일정 :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4일간 공부하면서 법회를 봅니다.





◆ 순례지도법사 – 성효스님
◆ 활동 사항
제 14, 15대 중앙종회의원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역임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순례 포인트

◆ 달라이라마 존자님 특별법회 4일
◆ 현지 국내선 4회를 이용한 편안한 순례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관광
◆ 한식 조리사 동행하여 한식 제공
◆ 네팔순례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 히말라야 산맥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9일 (금) 까지
● 구비서류 : 여권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사진 4매 (흰색배경 5×5cm)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 주 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 주 관 : 티벳대장경역경원
● 안 내 : 불타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 인정

특별기획

출발 확정 : 8월 18일 (목) ~ 8월 27일 (토) (10일)

러시아와 북유럽 3개국 탐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 러시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유럽 3국
러시아(모스크바, 상뜨페테르 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북유럽
여주 목아 박물관 박찬수 관장님과 함께 합니다.



불교 성지순례전문
불타 여행사 BUDDHA BOHEMIAN 02)733-9317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804호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